■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19-352.
http://doi.org/10.17948/kcs.2019..85.319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상택지(相宅志)」의 내용 중 풍수에 관한 연구* **

조인철(趙仁哲)***

목 차

1. 서론
2. 형세론적 내용
3. 이기론적 내용
4. 결론

국문초록

『林園經濟志』는 徐有榘(1764-1845)가 만년에 저술한 것으로 농업 위주의 백과전서이다. 이 저서는 중국 서적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조선시대 생활상과 양반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相宅'은 명칭 자체가 의미하듯이 집을 본다는 것이다. 『상택지』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楓石 서유구는 풍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이다. 『상택지』는 주로 살아있는 사람의 집터와 집 자체 그리고 주변 도로, 식재나 연못을 포함한 자연환경을 풍수

*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본 논문은 2019년 2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상택지, 예규지, 번계시고 출간기념 풍석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원광디지털대 동양학과 부교수.

적 논리로써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상택지』의 내용을 풍수이론에 따라 龍穴砂水의 形勢論과 地勢向, 絶對向, 相對向의 理氣論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상택지』에서 드러난 풍수의 이기론적 내용으로 먼저 지세향론적 언급은 「論背山面湖」(산을 등지고 호수를 앞에다 두는 것)에서 보인다. 이것은 풍수에서 자주 거론되는 背山臨水(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둠)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특히 「論方位不足」(대지의 형태)에서는 터의 형태와 방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상택지』에서는 도로가 남쪽에 있고 같은 면적의 조건이라고 할 때, 도로에 길게 접하는 대지보다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좁더라도 깊이가 있는 대지를 선호하고 있다. 『상택지』를 통해서 조선후기 집터와 집짓기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주로 고려하였는지 하는 것과 풍석이 생각하는 풍수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겠다.

주제어: 상택지(相宅志), 풍수, 양택, 방위, 형세, 나침반.

1. 서론

『林園經濟志』는 16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林園十六志』 또는 『임원경제십육지』라고도 하는데, 조선 순조 때의 楓石 徐有榘(1764-1845)가 만년에 저술한 것으로 농업 위주의 백과전서이다. 이 저서는 중국 서적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생활상과 양반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서적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1] 우리 시대의 한류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溫故知新과 法古創新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임원경제지』의 『相宅志』 부분은 묘지 중심의 음택풍수적 내용이 아

1) 풍석 서유구에 대한 것,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배경, 의의 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조창록, 「楓石 徐有榘와 林園經濟」, 『한문학보』 제8집, 우리한문학회, 2003, 201-225면; 「서유구의 학문관과 『임원경제지』의 글쓰기 방식」, 『쌀·삶·문명연구』 제2호, 쌀·삶·문명연구원, 2009, 93-108면; 심경호, 「『임원경제지』의 문명사적 가치」, 『쌀·삶·문명연구』 제2호, 쌀·삶·문명연구원, 2009, 5-42면; 염정섭, 「『林園經濟志』의 구성과 내용」, 『농업사연구』 제8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 1-42면; 안대회, 「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서유구의 利用厚生學」, 『한국실학연구』 제11호, 한국실학학회, 2006, 47-72면;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83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447-479면 등.

니라 '집과 집터의 길흉'과 관련된 양택풍수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건축을 이해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상택지』는 「相宅志引」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유구의 풍수에 대한 관점이 "술수는 군자가 취하지 않는 것이며, 살 곳을 살피는 사람은 이러한 술수를 버리는 것이 좋다"[2]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앞선 『산림경제』나 『증보산림경제』[3]와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임원경제지』의 한 부분인 『상택지』에서 풍수적 내용만 추출하여 풍수논리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풀어서 살펴보는 것이다. 『임원경제지』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이 저술의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에 부응하여 여러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가 있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와 연관하여 건축, 조경의 분야에서 『섬용지』, 『상택지』, 『이운지』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본 연구와 일치하는 기존의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4]

본 연구는 『임원경제지』의 규장각소장본[5]을 기본으로 하고 오사카 부립나카노지마도서관 소장본[6]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7]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풍석문화재단에서 번역 출간한 『임원경제지 상택지』[8]를 참

2) 서유구, 『임원경제지 상택지』, 이동인 외 역, 풍석문화재단, 2019, 60-62면 참조.

3) 『산림경제』는 홍만선(洪萬選, 1643-1715)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4권 4책의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증보산림경제』는 1766년(영조 42)에 유중림(柳重臨, 1705-1771)이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엮은 농서이다. 16권 1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원경제지』의 『상택지』는 『증보산림경제』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4) 논문의 제목에서 『상택지』가 거론된 것으로 김규섭・이재근, 「『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정원조영 연구: 「怡雲志」와 「相宅志」을 중심으로」, 『전통조경학』 제32권 1호, 전통조경학회, 2014, 22-30면이 있다. 해당 연구는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전통조경의 원리 및 기법에 주목하여 한국전통조경의 작정서로서의 가치를 조경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 외, 조선 실학자의 풍수관을 종합한 최원석, 「유학과 풍수—조선시대 풍수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남명학』 제19집, 남명학연구원, 2014, 225-256면이 있다. 여기서는 조선 실학자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그들의 풍수관을 간략히 언급 정리하고 있다. 특히 『임원경제지』의 『상택지』에 대해서는 서유구가 비록 '풍수의 화복설은 경계하고 비판'하였지만, '주거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상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5) 『林園經濟志』(규656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林園十六志』(佐藤六石氏 收集本, 韓9-64), 大阪府立中之島図書館.

7) 『林園經濟志』(신암 E1 A357), 고려대 중앙도서관 한적실.

조하였다.

본 연구는 『상택지』의 내용에서 풍수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풍수론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형세론과 이기론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형세론에서는 용론, 혈론, 사론, 수론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고, 이기론에서는 지세향, 절대향, 상대향으로 구분[9]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형세론적 내용

풍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이론[10]으로 대별된다. 그것이 소위 龍論, 穴論, 砂論, 水論, 向論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 것이 바로 形勢論과 理氣論이다.[11] 그래서 형세를 위주로 보는 풍수를 形勢派라고 하고 방위를 위주로 보는 풍수를 理氣派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서 형세론은 形과 勢를 보는 이론인데, 용론, 혈론, 사론, 수론을 형세론으로 묶을 수 있다.[12] 그 다음 이기론은 向論, 또는 方位論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상택지』의 내용 중에서 산줄기를 龍으로 언급한 것들은 소위 용론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책에서는 "入首到頭에서 볼 때, 용의 손이나 다리가 열려있으면 집터[陽居]가 되고, 손이나 다리가 오므려져 있으면 묏자리[陰宮]가 된다."는 등의 「論龍脚收放」[13]을 비롯하여 산줄기를 용으로 표

8) 서유구, 앞의 책.

9) 이기론 즉 向論은 지세향, 절대향, 상대향 그리고 논리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택지』의 논리향에 대해서는 조인철, 「『임원경제지』「상택지」의 내용 중 '木星輪圖'에 의한 방위측정상의 길흉 판단에 관한 연구」, 『石堂論叢』 제74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9, 137-171면 참조할 것.

10)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 풍수고전으로는 청나라 시기에 趙廷棟이라는 사람이 쓴 『地理五訣』이라는 책이 있다.

11) 넓은 범위에서 풍수이론이라고 할 때, 그 외에도 明堂論, 形局論 등이 있다. 명당론은 명당의 종류를 나누고 각각의 특성을 논한 것이다. 명당론에는 좋은 땅을 말하는 明堂뿐 아니라 凶堂도 다루고 있다. 그 다음 형국론은 앞에서 이야기한 형세론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 대하여 어떤 특징적 사물에 빗대어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이다.

12) 용・혈・사・수를 굳이 形과 勢로 구분하면 龍과 水는 주로 勢, 穴과 砂는 주로 形을 위주로 본다.

13) 「論龍脚收放」,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면. "凡定宅安墳, 雖有陰陽之別, 而論山川風氣之聚散, 理則一同, 其所稍別者, 龍之到頭, 手脚開則爲陽居, 手脚收則爲陰宮." 『增補山林經濟』 원문의 번역은

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14] 풍수적 용어로 사용된 것 중에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來龍이 나약하고 둔탁해서 생기가 없거나, 잘게 부서지고 비뚤어져 있어 길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라는 등의 「論山形」[15]을 비롯하여 「取路法」에서 "迎山就水가 되는 방향으로 집의 대문과 진입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16]는 등의 來龍의 의미로 언급된 것은 모두 용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풍수상의 來龍의 의미는 '다가오는 용'이라는 것으로 穴의 뒤쪽으로 연결된 가까운 산줄기를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택지』에서 용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生氣가 없는 來龍을 피해야 하는 것과 迎山의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택지』에서 穴論은 '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 모두[17]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중에서 水穴이나 風穴이라고 하여 물이 나오거나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평탄한 땅이 한 번에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는 경우, 반드시 용이 굽이쳐 내려와 穴이 맺혀 이루어진 조건이 갖춰지면서도 그곳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은 뒤라야 참으로 좋은 집터가 된다."고 할 때 '穴之結作[18]'이라는 것은 혈론에 해당된다.

> 中原은 땅이 숫돌처럼 평탄하면서도 넓게 펼쳐져 있으므로 그 祖山과 宗山이 일어난 곳이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니, 군영을 세우고 주둔할 수 있을 만큼의 龍의 지기를 품은 곳은 마루나 안방 1칸 정도의 반듯한 땅에 불과하다. 이곳이 바로 '的穴'이다. 『葬經』에 '땅에 길한 기운이 있으면 흙이 그 기운을 따라서 솟아오른다.'라 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이 적혈이어서 길하다.[19]

주로 서유구, 앞의 책의 번역을 참조하였으며, 연구자 나름의 수정 보완을 가하였음. 이하 동일.

14) 『상택지』에는 龍이란 용어가 모두 83회 나오지만, 지명으로 사용된 것이나 상상의 동물로서 용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풍수용어로써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論山形」,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0면. "凡山於祖宗有堪輿家樓閣飛揚之勢, 主山又秀麗端正, 淸明嫩閑者爲上. 後山綿綿渡野, 忽起高大峰巒, 紆回枝葉, 結作洞府, 如入官府之內, 而主勢穩重豐碩, 如重屋, 高殿者次之. 四山遠却平圍而山脈落下平地, 遇水卽止, 爲野基者又次之. 最忌, 來龍懶弱頑鈍而無生氣, 或破碎欹斜而少吉氣. 凡地無生氣、吉氣, 則人才不出.【八域可居誌】"

16) 「取路法」,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0면. "凡宅門路要開來龍、來水, 方爲迎山就水吉."

17) 『상택지』에는 穴이라는 용어가 모두 13회 등장한다.

18) 「論平地陽基」,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7면. "平衍之地, 一望無際, 亦必以龍之來歷、穴之結作, 處高於衆地而後爲眞."

위의 인용문에서 '的穴' 등으로 언급된 것은 모두 풍수상의 혈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혈이라는 것은 집 지을 자리, 묘를 쓸 자리로 바로 그 일정 부분의 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혈지결작'이라는 것은 혈을 맺는다는 의미이고, '적혈'은 眞穴이라는 의미로 통한다. 풍수가들 사이에 하나의 封墳을 두고 그것이 '옳은 자리다 그른 자리다', '眞穴이니 假穴'이니 하는 논쟁이 벌어지는 대상이 바로 풍수상의 穴인 것이다. 사실상 혈론은 『상택지』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주로 봉분을 구성하는 음택의 풍수에서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상택지』가 음택에 비해 비교적 넓은 터를 대상으로 하는 양택풍수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풍수에서 砂論은 주로 주변 산봉우리에 대한 길흉판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봉우리로 많이 선호하는 것은 붓을 세워놓은 듯한 모양새를 띠는 筆峯이라는 것이다. 『상택지』에서 "하천 밖에 산록이 있는데, 그 밖으로 산봉우리가 솟아있는데 그것의 모양이 필봉과 같은 격이라면 좋은 것이다."[20]라고 하는 언급이 있다.



〈그림 1〉 전북 임실의 필봉리의 필봉. 임실필봉 문화촌에서 2016년 촬영.

한편, 사신사에 관한 것도 砂論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택지』에

19) 「論平地陽基」,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7면. "但中原平洋如砥, 其祖宗起處或遠或近, 而立營駐節之處, 不過堂奧一室之正地, 是爲'的穴'. 『經』曰 : '地有吉氣, 土隨而起.' 是故最高之處爲的穴吉."

20) 「六欲六有」,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4면. "川外有麓, 麓外有峯焉, 如筆格."

서 언급한 "왼쪽에 흐르는 물이 있어 이를 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에 큰 도로가 있어 백호"라는 등의 「論四象」[21]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尖秀端圓의 봉우리가 집의 전면에 보이면 과거급제자가 나온다"고 하는 등의 「論砂應」[22]과 "沖砂가 산의 전후좌우로 보이면 이런 곳은 모두 살기에 좋지 않다"고 하는 「論朝山」[23]등도 풍수이론상의 砂論에 해당하는 내용이다.[24] 이처럼 『상택지』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론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단연 筆峯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文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필봉이 문과급제자의 배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水口와 관련된 사론적 언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水口砂라는 것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수구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곳을 말하는데, 수구사는 바로 수구의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25] 하는 모래섬, 바위 등의 자연대상물을 말한다.

> 대개 수구에는 둥근 모양의 흙산으로 된 墩臺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羅星'이라 한다. 흙은 돌보다는 못하지만 그 힘은 1만 개의 산에 버금간다. 한편, 水口砂로서 특이한 바위가 새 또는 네발짐승 같기도 한 모양으로 그 머리 부분이 물 흐름을 거슬러 위로 향해 있고 꼬리 부분은 쳐져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면 매우 길한 것이다. (…) 물 가운데 있는 모래섬의 머리 부분이 물 흐름을 거슬러 위쪽을 향해 있는 것으로 1개라면 큰 부자가 될 것이고, 3개라면 더욱 좋고, 모래섬이 갑자기 수구에 나타나면 가장 길하다.[26]

---

21) 「論四象」,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9면. "宅欲左有流水, 謂之'青龍'; 右有長道, 謂之'白虎'; 前有汗池, 謂之'朱雀'; 後有邱陵, 謂之'玄武', 爲最貴地. 若無此相, 兇."

22) 「論砂應」,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5면. "凡宅左右前砂尖秀端圓, 科第."

23) 「論朝山」,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6-17면. "凡朝山或有麤惡石峯, 或有欹斜孤峯, 或有崩落之形, 或有窺闖之容, 或有異石、怪巖見於山上、山下, 或有長谷沖砂見於左右前後, 皆不宜居. 必也遠則清秀, 近則明淨, 一見令人歡喜而無崚嶒、憎惡之狀, 乃吉.【八域可居誌】"

24) 여기서 尖秀端圓은 필봉처럼 뾰족하면서도 수려한 봉우리와 단정하며 둥근 봉우리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沖砂는 집터를 향하여 쏘듯이 내려오는 산줄기나 서 있는 봉우리를 말한다.

25) 풍수이론상 水口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의미하며, 그곳이 잘 關鎖되어 물이 천천히 흘러 나가는 것을 길한 것으로 판단한다.

26) 「論水口」,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4면. "凡水口有圓山土墩, 謂之'羅星'. 土不如石, 力敵萬山, 或奇砂、怪石如禽如獸, 頭逆向上, 尾拖下流, 大吉. (…) 水中有沙洲, 首逆上流, 一洲巨富, 三洲更好, 忽見於水口最吉."



〈그림 2〉 漁翁撒網形局圖. 그림의 점선이 물길이고, 물길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중간에 타원형으로 둥글거나 길쭉한 모양의 羅星이 있다.[27]



〈그림 3〉 봉화 닭실마을의 수구사. 바위에는 '砥柱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지주암은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유가적 측면과 水口砂로서 풍수적 측면에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2018년 촬영.

풍수이론 중의 하나인 수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수구사가 있는 水口에 대한 것인데, 『상택지』에서는 「論水口」라는 제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구 항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水口關鎖의 여부이다.

> 살 곳의 운(運)을 볼 때는 먼저 수구를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구가 이지러지고 넓게 트인 곳이라면, 아무리 1頃[28]이나 되는 좋은 밭과 1천 칸이나 되는 넓은 집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를 이어 후손에 넘겨줄 수 없다. 자연스레 기운이 흩어져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터를 살필 때는 반드시 水口關鎖가 된 곳을 구해야 한다.[29]

『상택지』에서 수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論水應」 편인데, "무릇 물이라는 것은 집터나 묫자리를 정함에 있어서 법식대로 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이를 어기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30]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법식

27)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303면.
28) '頃'은 5,840평 정도의 규모를 말한다.
29) 「論水口」,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4-15면. "卜居, 先看水口. 凡水口虧疏空闊處, 雖有良田頃,廣厦千間類, 不能傳世, 自然消散耗敗. 故尋相陽基, 必求水口關鎖."

이라는 것은 바로 理氣論的 측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상택지』에서 구체적인 재앙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宅內出水雜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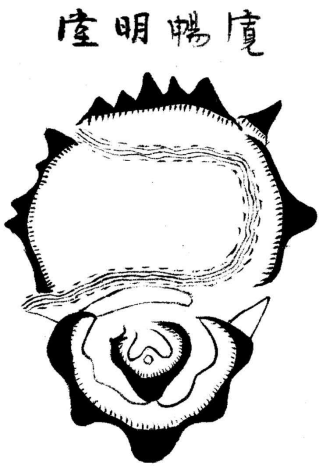
> 물길이 門을 채우고 나가면 悖逆하는 자손이 나온다. 물이 [한쪽으로] 집에 바짝 붙어 지나가다 동쪽으로 흘러나가면 禍가 없다. 물이 만약 거꾸로 흐르면 그 집안의 가장은 여자가 된다. 물이 문을 따라 밖으로 나가면, 주로 가산이 흩어져 빈궁해진다. 지붕의 낙숫물이 엇갈려서 쏟아지면 길하지 않다. 또 낙숫물이 堂으로 들이쳐서 몸에 부딪히는 일은 금한다. 낙숫물이 [양쪽] 처마 끝에서 서로 엇갈려 쏟아지면, 주인의 殺傷이 일어난다.[31]

『상택지』에서 거론된 水論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물이 주는 生氣에 대한 것으로 '水管財錄'의 재물로 상징되는 水口關鎖로 요약된다. 닭실마을의 지주암과 같은 수구사에 대한 것, 수구를 잘 여미어야 한다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물이 주는 殺氣에 대한 것으로 물길의 방향, 낙숫물의 방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상택지』에서 「放水雜忌」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는 향론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 地理五科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풍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론 중에 明堂論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과 거처는 높고 깨끗한 곳이 길하다. 사람의 집터는 다만 앉은 자리가 평평하고 넓어야 하며, 좌우로 刻迫하지 않아야 한다. '寬暢明堂'으로, 흙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論人居宜高淨寬暢」[32]이다. 명당이 넓게 트인 것으로 寬暢明堂이 좋다는 것이다. 『상택지』에서 거론하고 있는 '관창명당'은 풍수고전 『인자수지』[33]에서 분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당[34] 중의 하나이다.

---

30) 「論水應」,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1면. "凡水, 宅、墓同占, 得法則福, 失法則禍."
31) 「宅內出水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3면. "水路充門, 悖逆兒孫 ; 水寄宅過東流, 無禍.【居家必用】 水若倒流, 宅主女爲家長.【同上】 水從門出, 主耗散貧窮.【同上】 屋水交射, 不吉. 又忌射堂衝身.【增補山林經濟】 水簷頭相射, 主殺傷.【同上】"
32) 「論人居宜高淨寬暢」,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면. "人家居處高淨吉. 陽居但要坐下平衍, 左右不迫. 明堂寬暢, 土潤泉甘. 『經』云 : '一山一水有情, 小人所止 ; 大山大勢入局, 君子攸居.'【攷事撮要】"
33) 徐善繼・徐善述,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卷6上, 上海: 錦章圖書局, 1922(民國11年), 11-13면 참조.
34) 『상택지』에서 언급된 '관창명당' 외에 繞抱명당, 交鎖명당, 融聚명당, 平坦명당, 朝進명당, 廣聚명당, 大會명당, 周密명당 등이 있다.



〈그림 4〉 寬暢明堂.[35]

『상택지』의 내용 중에 명당론 외에 形局論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려면 '局'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論人居宜高淨寬暢」에서 "局이 작은 곳에서는 小人이 거처하고, 大山大勢가 大局을 이루는 곳에서는 君子가 머무를 곳"이라고 하여, 사는 곳의 국의 크기에 따라 대소인이 사는 곳이 구분된다고 하였다.[36] 풍수고전 『인자수지』를 참고하면 대취, 중취, 소취로 나누어 局의 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龍의 結局에는 三聚가 있는데 大聚, 中聚, 小聚를 말한다. 廖 씨가 말하길 '帝都의 山水는 반드시 大聚요, 中聚는 都市나 郡邑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小聚에서 消息奪神功하라' 하였다. 진실로 百里來龍에는 百里의 규모가 있고, 千里來龍에는 千里의 기상이 있는 것이다. 帝都와 省市는 그 龍이 길며 그 局이 넓어야 마땅한 것이다. (…) 그러므로 小聚處는 많은 山水가 翕集하고 四勢가 가까이 단결하여 有情하게 감싸주고 擁從하는 가운데 眞穴이 있는 것이다. 이를 藏風聚氣라 한다.[37]

이외에도 『상택지』의 권2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형국론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慶州를 아주 길한 형국인 '回龍顧祖'로 본 것이다.

> 도읍 경주는 고칭으로 '鷄林君子之國'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東京이라 한다. 태백산의 왼쪽 산줄기의 중앙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풍수가들이 이를 '回龍顧祖'라

35) 조인철, 앞의 책, 2008, 279면.

36) 「論人居宜高淨寬暢」,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면. "『經』云: '一山一水有情, 小人所止 ; 大山大勢入局, 君子攸居.'"

37) 徐善繼・徐善述, 앞의 책, 권2하, 29면. "龍之結局有三聚, 曰大聚、中聚、小聚. 廖氏云: '帝都山水必大聚, 中聚爲城市, 墳宅宜居小聚, 中消息奪神功.' 誠以百里來龍, 則有百里規模, 千里來龍, 則有千里氣象. 故帝都省郡, 其龍長其局廣宜矣. (…) 故多是小聚處, 山水翕集, 四勢團近有情, 而眞穴必居包裏擁從之中, 所謂藏風聚氣者也."

고 한다. 경주는 서북쪽을 향해 벌어진 형국으로, 물은 동쪽으로 흘러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들어간다.38)



〈그림 5〉 경주 지형도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그린 회룡고조형국.39)



〈그림 6〉 회룡고조형.40)

회룡고조의 형국은 산줄기가 멀리 나아가다 산머리를 빙 돌려서 다시 자신이 돌아온 산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경주의 경우는 『상택지』에서 특이하게 제시된 풍수적 사례로서 북쪽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남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산줄기형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안에 생성된 물줄기는 결국 북쪽의 영일만으로 빠져나간다. 경주 외에 회룡고조형국으로 풍수사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좁은 형국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세종대왕의 영릉이다.

38) 「嶺南」,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2, 29면. "都慶州, 卽古所稱'鷄林君子之國'也, 今稱'東京', 在太白左枝中央, 地家言'回龍顧祖', 向西北開局, 局中之水東流爲大江入于海."
39) 연구자 작성. 이하 출처가 없는 것은 모두 연구자 작성.
40) 조인철, 앞의 책, 2008, 313면.



〈그림 7〉 영릉. 대표적인 회룡고조형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는 북성산(257.5m)인데 능의 뒤쪽의 산줄기와 연결되어 있다. 2013년 촬영.

그 외 局이라는 접미어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형국적 언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藏風이나 得水인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논평지양기」에서 "평양지역의 양택지로는 우선 得水局이 되어야 한다."[41]와 「논산곡양기」에서 "산골짜기 양택지로는 최우선적으로 藏風局이 되어야 한다."[42]가 있다.

그 외 용혈사수에 포함할 수 없는 순수하게 陽宅論이라고 할 수 있는 집 자체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 주로 『상택지』 권1의 「營治/建置」 편의 「造屋雜忌」에 나오는 내용이다. 먼저 사론에서 언급한 사신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줄기나 산봉우리가 이루는 사신사뿐 아니라, 집터 주변의 물줄기, 도로, 호수 등을 사신사로 간주하는 것이 있다. 그 외에 사신사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집의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四邊에 위치한 각 동의 건물을 사신사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내용도 있다. 집의 사변의 어느 부분도 터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 집은 동쪽에 건물이 없거나, 혹은 북쪽이 터져 있거나, 남쪽이 터져 있거나, 서쪽이 터져 있어도 길하지 않다.[43] 『증보산림경제』[44]

41) 「論平地陽基」,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7면. "凡平洋陽基, 先須得水."
42) 「論山谷陽基」,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8면. "凡山谷陽基最要藏風."

그 외, 山殺, 水殺이라고 하여 穴을 향해서 쏘듯이 다가오는 山水를 흉하게 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양택에서도 어떤 것이든 어느 방향이든 무엇인가 뾰족한 것이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의 衝의 개념으로 보고 기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 주택의 청(廳) 뒤에는 귀두[龜頭, 거북 머리 형상]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거가필용』[45] 처마 끝이 집을 찌를 듯이 향하면 주로 살상이 일어난다. 처마 끝이 안에서 밖으로 찌를 듯이 향하면 바깥사람이 죽고, 바깥에서 안으로 찌를 듯이 향하면 안 사람이 당한다. 일반적으로 집은 바깥 처마가 넓게 내려온 것을 으뜸으로 여기므로 처마가 좁거나 벽에 바싹 다가서게 해서는 안 된다. 빗겨 들어오는 비가 벽면을 적시면 집안사람들이 이질(痢疾)에 많이 걸린다.[46] 집 안의 출입구와 대문이 서로 마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거가필용』[47] 부엌문은 그 집의 대문과 마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주로 구설수에 오르고 질병이 생긴다.『거가필용』[48] 문 2개를 서로 마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양쪽 벽면에 창문을 마주 보도록 내고 싶으면 반드시 한쪽은 홀로, 다른 쪽은 짝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증보산림경제』[49]

집의 앞 또는 뒤편으로 거북이 머리처럼 몸통에서 삐죽 튀어나온 것들은 그것이 건물이든, 바위든 관계없이 龜頭로 보는데, 일종의 衝의 개념으로 보고 꺼린다는 것이다. 이것은『거가필용』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가장 오래된

---

43) 동쪽에 아예 건물이 없는 경우, 서, 북, 남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44)「造屋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3면. "屋無東, 或缺北, 或缺南, 或缺西, 亦不吉.【增補山林經濟】"

45)「造屋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5면. "居宅廳後, 不宜作龜頭.【同上】";「廳堂」,『居家必用事類全集』 丁集 宅舍 周書祕奧營造宅經, 132면. "居宅廳後, 不宜作龜頭." '청후불의작귀두'에 대해서는『상택지』의「조옥잡기」에서 55면, 56면에 1회씩 2회 언급되고 있다.『거가필용사류전집』은 중국 원나라 시기에 편찬된 가정백과사전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甲集에서 癸集까지 총 10개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다.「주서비오영조택경」은 丁集의「宅舍」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46)「造屋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4면. "水簷頭相射, 主殺傷. 內射外, 外人死 ; 外射內, 內人當. 凡屋, 外簷廣闊爲上, 不得逼促. 斜雨澆壁, 家多痢疾."

47)「裝門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9면. "宅戶、三門莫相對.【居家必用】"

48)「造屋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5면. "竈房門不可對其屋門, 主口舌、病患.【居家必用】"

49)「造屋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5-56면. "兩戶不可相當. 兩壁如欲對窓, 必須一隻一雙.【增補山林經濟】"

풍수서로 알려져 있는 『황제택경』[50]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처마 끝의 삐죽한 부분도 일종의 충살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집안[우리집]에서 밖으로 충할 때는 陽衝으로 남자가 害를 입고 그것이 외부[남의 집]에서 들어오는 것은 陰衝으로 안사람이 害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 문과 문이 서로 마주 보는 것, 특히 대문과 방문, 대문과 부엌문이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충으로 보고 꺼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방문끼리는 가능한 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하고 칸은 홀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간잡이에 대한 내용[51]이 있는데, 隻大吉[홀수가 대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집의 칸수가 홀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집의 중앙 칸의 상위적 위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52] 한편, 난간의 칸을 만들 경우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偶]로 해야 길하다고 언급하였고, 廳과 堂의 관계에서 집이라면 반드시 堂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공간적 폐쇄성의 정도로 구분한다면, 臺-堂-廳-室-房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 집의 칸살은 짝수로 만들지 말아야 하니, 홀수로 만들어야 크게 길하다.[53] 개인 주택의 청(廳)은 넓고 크게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칸수도 홀수로 해야 한다.[54] 당(堂)의 정면 난간을 계획할 때는 偶數를 사용해야 하니, 그렇게 하면 주로 집이 화목하다.『거가필용』[55] 청은 있으나 당이 없으면, 고아와 과부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다.『거가필용』[56]

---

50) 조인철, 『황제택경』, 민속원, 2017, 33면. "龜頭廳을 忌避하는데, 그것이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북쪽의 堂을 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름하여 凶亭이라고 한다."

51) 「造屋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造屋, 必用單數爲吉, 如一間、三間之類. 量柱尺數及布椽多少, 亦用單數.【增補山林經濟】"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칸수를 홀수로 사용하는 것을 길하다고 여기니, 예컨대 1칸·3칸과 같은 부류로 짓는 것이다. 기둥의 척(尺)수 및 서까래를 까는 숫자를 헤아릴 때도 홀수를 사용한다.

52) 3칸인 경우는 중앙의 한 칸이 가장 중요한 실이 된다. 5칸인 경우, 좌우의 중앙 칸은 3번째 칸이 된다. 궁궐과 종교 건축 등에서 주요 건물에 흔히 적용하는 방식이다.

53) 「造屋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4면. "屋架與間不欲雙, 須隻爲大吉. 水簷頭相射, 主殺傷. 內射外, 外人死 ; 外射內, 內人當. 凡屋, 外簷廣闊爲上, 不得逼促. 斜雨潑壁, 家多痢疾."

54) 「造屋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5면. "私居廳, 不必廣大, 亦要數隻."

55) 「造屋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5면. "畫堂應干, 須用偶數, 則主家和睦.【居家必用】"

56) 「造屋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5면. "有廳無堂, 孤寡難當.【居家必用】"

廳과 堂의 관계는 陰과 陽의 관계로 볼 수 있다. 堂 없이 바로 廳으로 들어가거나, 室로 진입하는 것을 흉하게 본 것이다. 일종의 轉移空間이나 버퍼존(buffer-zone)이 없이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그래서 有廳無堂이면 孤寡難當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으로 『임원경제지』의 『상택지』에서 거론된 풍수이론상의 용론, 혈론, 사론, 수론과 명당론, 형국론을 포함하여 형세론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택지』에 포함된 풍수 내용은 방대하고 잡다한 것들을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이기론적 내용

1) 地勢向

이기론이란 地理五科의 내용 중에 向論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향론은 나침반으로 방위를 측정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풍수이론으로 방위론이라고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向은 바라보는 방위를 말하는데, 이를 좀 더 세분한다면 지세향, 절대향, 상대향, 논리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방위론 속의 地勢向이라는 것은 사실 나침반 같은 도구를 놓지 않고 태양의 위치나 地勢를 보고 향을 논하는 것을 말한다. 『상택지』의 내용 중에 「論背山面湖」라고 하는 것은 터잡기를 함에 있어서 앞에다 물을 두고 뒤에 산을 두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背山臨水와 같은 말이다. 「論背山面湖」에서 地理를 언급한 취지는 水陸兩用의 교통의 편리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이것은 앞과 뒤를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세향적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다.

> 治生에서 필수적인 것은 먼저 地理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水陸幷通處가 지리로는 최고다. 따라서 背山하고 面湖하는 곳이 빼어난 터이다.[57]

「論四方高低」에는 "앞은 높고 뒤가 낮으면 絶孫되어 남는 집이 없다."[58]고

57) 「論背山面湖」,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면. "治生必須先擇地理, 地理以水陸幷通處爲最, 故背山面湖乃爲勝也."
58) 「論四方高低」,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9면. "前高後下, 絶無門戶."

하여 逆地勢向으로 뒤집어질 경우는 흉하다고 보았다. 지세향으로 건물을 앉힌다는 것은 향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언급이다. 즉, 배산임수의 지세향에서 앞과 뒤는 동서남북 중 어느 것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日照를 고려할 때, 주로 낮은 지형의 앞을 남쪽, 높은 지형의 뒤를 북쪽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즉, 이러한 조건을 갖춘 남쪽사면이 북측사면에 비해서 훨씬 살기에 좋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풍수에서 지세향은 배산임수의 의미 외에도 지세에 순응하여 향을 잡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세에 따라 북측사면에 자리함으로써 북향의 집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향을 정함에 있어서 그 어느 기준보다 지세를 우선하여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絶對向

절대향이란 북극성이 가리키는 眞北처럼,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방위를 말한다. 한편, 풍수에서 절대향은 방위의 판단기준인 나침반을 놓는 자리로서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을 정하거나 길흉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 즉, 절대향은 상대향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데, 절대향은 상대향에 비해 360도의 어느 향에 대하여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무조건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배수(排水)할 때의 여러 금기 중에서 "물이 집의 동쪽으로 배수된다면 별 화(禍)가 없다"[59]라고 한 것은 절대향적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절대향적 언급은 주로 동서남북의 넷 방향에 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12방위, 24방위의 범위로 언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상택지』의 「論四方高低」에서 "무릇, 집의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으면 집주인은 부귀하고 권세를 누린다. (…) 뒤는 높고 앞이 낮으면 그 집에 소와 말이 풍족해진다."[60]라고 하였다. 이것은 北高南低에서는 남측사면, 西高東低라면 동측사면의 터를 선호하였음을 의미한다.

---

59) 「宅內出水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3면. "水寄宅過東流, 無禍.【居家必用】"
60) 「論四方高低」,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9면. "凡宅東下西高, 富貴雄豪. (…) 後高前下, 多足牛馬."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어떠한 방위로 건물을 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풍수향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상택지』에서는 『전가보』와 『금화경독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집터나 房室의 향을 정함에 있어서 동서남북 중에서 남향을 최고로 치며, 동향을 그다음으로 하고, 피치 못할 경우 북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절대로 서향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절대향적 언급을 하고 있다.

> 人家의 房은 南向이 가장 좋고, 東向이 그다음이며, 北向이 또 그다음이지만, 절대로 西向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문이 서쪽을 향하면 이롭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전가보』[61]

> 집의 運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坎[북]을 뒤로하고 離[남]을 향해야 寒氣와 溫氣가 균형을 이루어서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난다. 그다음으로는 酉[서]를 뒤로하고 卯[동]를 향해야 그나마 막 생성되는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나쁜 것은 卯를 뒤로하고 酉를 향하는 곳이니, 일찍부터 햇빛을 보지 못한다.『금화경독기』[62]

전통마을 중에는 간혹 북측 사면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63]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풍수적 사고가 깊이 반영된 것으로 어느 조건보다도 지세를 기준으로 향을 잡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지마을이 되기 쉬운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택지』에서는 비록 집 자체는 남향이 되지 못하더라도 房의 窓이라도 남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집의 향은 지세향으로 창의 향은 절대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반구의 겨울철 일조량의 확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 人居房室은 반드시 南向으로 지어서 陽氣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집터가 子坐, 酉坐, 卯坐로 되어 있거나 상관없이 사람이 사는 방에 관계된 것이라면 모

61) 「論居室宜向南」,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1면. "人家房屋, 向南爲上, 向東爲次, 向北又次, 切不可向西, 以西方門向, 多不利也.【傳家寶】"
62) 「論向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7-18면. "凡卜居, 必坐坎而面離, 寒燠得中, 草樹茂美. 其次坐酉面卯, 猶可以受方生之氣. 最下者, 坐卯面酉, 不早見日光.【金華耕讀記】"
63) 북측사면에 자리한 북향의 대표적인 전통마을로는 경북 군위의 한밤마을[大栗里]이다.

두 남향으로 낸 창이 없어서는 안 된다.『금화경독기』64)

한편, 주택의 배치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있는데, 서쪽을 老妻에 대응시키고, 동쪽을 老翁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래서 서쪽이 비어있어 虛할 경우, 노처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동쪽이 비어 허할 경우 노옹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집터의 동쪽이 건물로 들어차고 서쪽이 비어 있으면 집안에 老妻가 없어지고, 집터의 서쪽에는 건물이 있으나 동쪽에는 없으면 집안에 老翁이 없게 된다.65)

이것은 東西를 陰陽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동쪽을 남자로, 서쪽을 여자의 방위로 간주하는 思想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남향한다고 할 때, 동쪽이 좌측으로 청룡방위이자 남자, 서쪽이 우측으로 백호방위이자 여자방위가 되는 것이다.66)

그 외에 터의 평면적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동서남북을 12지지 중의 子午卯酉로 표현하여 방위를 논한 경우도 있다. '묘유'가 부족한 형태라는 것은 동서의 폭이 좁고 남북[列]으로 길쭉한 형을 말한다. 자오가 부족한 형태라는 것은 동서[橫]로 길쭉한 형을 말한다.67)

일반적으로 집의 지형에서 卯方・酉方의 공간이 부족한 곳에 살면 자유롭다. 子方・午方의 공간이 부족한 곳에 살면 매우 흉하다. 子方・丑方의 공간이 부족

64)「論居室宜向南」,『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2면. "人居房室, 必須向南以受陽氣, 不論宅基之坐子、坐酉、坐卯, 凡係人居房屋, 皆不可無向南之牖.【金華耕讀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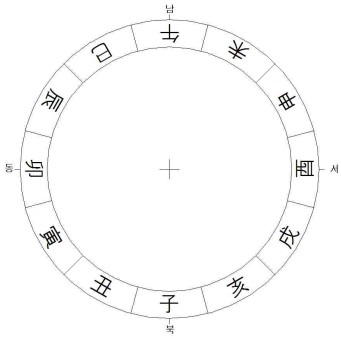
65)「造屋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53면. "凡宅, 實東空西, 家無老妻 ; 有西無東, 家無老翁.【居家必用】"

66) 이에 대하여 조규문,「『增補山林經濟』의『卜居』에 대한 풍수적 考察」,『동양철학연구』제94집, 동양철학연구회, 2018에서 陰靜陽動, 山靜水動의 원리를 적용하여 水神의 상징인 龍을 陽인 남자, 山神의 대표동물로서 호랑이를 陰인 여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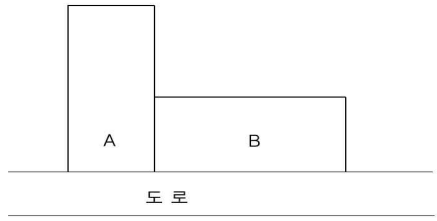
67) 조규문의 연구에서 "이 말은 집이 들어앉는 방향은 남향이 좋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언급이 '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지의 폭과 접한 도로'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고 남북으로 길쭉한 터, 동서로 길쭉한 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규문, 앞의 글, 53면 참조.

> 한 곳에 살면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남북 방향으로 길지만 동서 방향으로 좁은 곳은 길하고, 동서 방향으로 길지만 남북 방향으로 좁은 곳은 처음에는 흉하나 나중에는 길하다.『주서비오영조택경』68)

즉, 같은 면적이지만, 남북으로 긴 형태의 대지와 동서로 긴 형태의 대지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대지의 남쪽으로 도로가 있는 일반적 상황의 터를 가지고 논한다고 할 때, 도로에 길게 면한 터 보다는 도로에 면한 폭이 좁더라도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터를 선호하였음을 의미한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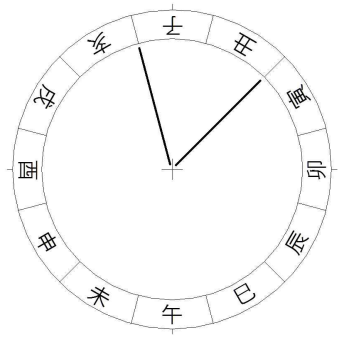


〈그림 8〉 12지지의 방위상의 子午와 卯酉.



〈그림 9〉 남북으로 길쭉한 터(A)와 동서로 길쭉한 터(B).

한편, "子方・丑方의 공간이 부족한 곳에 살면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자축의 방위는 12방위로 볼 때, 정북쪽 15도에 인접하여 시계방향으로 15도를 동쪽으로 돌아간 범위를 말한다(〈그림 10〉 참조). 따라서 남향의 집이라고 할 때, 집 뒤의 해당 방위가 반듯하지 못한 찌그러진 형태의 터라면 인접한 터에서 집안의 뒤쪽 깊숙한 곳을 쉽게



〈그림 10〉 12지지방위상의 자축방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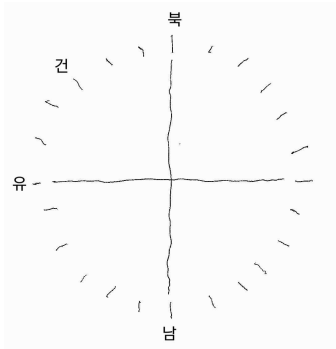
68) 「論方位不足」,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9면. "凡宅地形, 卯、酉不足, 居之自如 ; 子、午不足, 居之大凶 ; 子、丑不足, 居之口舌. 南北長東西狹, 吉 ; 東西長南北狹, 初凶後吉.【居家必用】"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12방위상의 서쪽 방향인 '亥'가 아닌 동쪽 방향인 '丑'을 거론한 것은 집의 중심에서 방위를 따진다고 할 때, 해방위의 서쪽보다는 축방위의 동쪽에 주로 집안의 아주 사적인 공간이 배치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집안에서 창고가 위치해야 할 방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의 방위의 기준은 집안의 중심에서 측정하였을 때의 방위이다.

> 일반적으로 창고를 지을 때는 뜰이나 마당이 있어야 하고, 마당 물의 흐름 방향이 창고 문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길하다. 창고를 지을 때에는 반드시 창고 앞의 뜰이나 마당의 물이 창고 문을 향하여 흘러오도록 해야 길하다. 집의 중심에서 볼 때, 창고가 있을 방위는 甲·丙·庚·壬 4방향으로 하되, 평상시 방문을 열고 앉으면 보이는 50-60척쯤 떨어진 곳에 창고가 위치해야 한다.『증보산림경제』[69]

여기서, 동서남북의 사방이 아니라 특정 방위인 甲庚丙壬을 거론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위의 4개의 방위는 음양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할 때, 天干의 陽에 속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甲木, 庚金, 丙火, 壬水로서 이것은 목화금수의 기운이 센 것[70]을 의미한다. 그래서 창고가 그러한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목이든 금이든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물이 창고 문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창고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된 물품이 젖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경우에도 물의 풍수적 상징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데, 물이 곧 재물이므로 재물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으로 창고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11〉 24방위상의 서북[乾]방위와 유(酉)방위.

69) 「倉庫方位」,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2면. "凡造倉庫, 須倉面前庭場, 水朝倉門, 吉. 宜用甲、丙、庚、壬四方, 平居開戶坐見處, 五六丈之距.【增補山林經濟】"

70) 甲木, 庚金, 丙火, 壬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운이 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乙木, 辛金, 丁火, 癸水이다.

절대향의 길흉판단에는 12방위 외에도 24방위가 등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24방위라 함은 12지지에 8괘 중의 4괘, 10천간 중에 8간을 360도의 7.5도 씩의 분금(分金)이 이루어진 칸에다 배속한 것이다.

> 마구간을 지을 때는 서북방위를 피하고, 또 유방(酉方)을 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맛이 없어진다.『증보산림경제』[71] 재를 쌓아 놓는 잿간은 유방(酉方)이 좋으니 주로 곡식이 많아진다.『증보산림경제』[72] 뜨거운 재는 불이 되살아나기 쉽다. 그러므로 잿간을 거주하는 곳에 인접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증보산림경제』[73]

한편, 앞에서 다룬 日照量 확보를 위한 방위 설정과 비교할 때 가능한 유방위 즉 서쪽방위를 피하라고 하였는데, 화로에서 나온 재를 쌓아두는 방위로는 오히려 서쪽이 좋다고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서쪽이 어떤 일이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누르는 금기운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화재 예방의 차원에서 오행으로 따지면, 수기운이 있는 북쪽에 두라고 할 것이나, 서쪽을 지목한 것은 아주 강한 금기운이 화기운을 누르는 相侮作用[74]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맛이 없어진다는 것은 경험적 판단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장맛의 결정은 장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효소의 작용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즉, 위의 언급은 마구간에서 발생하는 효소와 장맛을 결정하는 효소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택지』에서는 우물이나 샘의 위치에 대해서도, 마당 중심에서 볼 때 절대향을 적용하여 금기시되는 방위를 언급해놓았다. 여기서 우물[井]과 샘[泉]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우물은 인공적으로 땅을 파

---

71)「造廐方」,『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4면. "造廐, 忌西北方, 又忌酉, 令醬味不甘.【增補山林經濟】"

72)「置糞屋方」,『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3면. "灰屋宜酉方, 主多穀. 然必稍近廁邊可也.【增補山林經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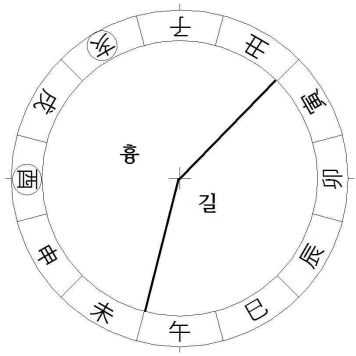
73)「置糞屋方」,『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3면. "熱灰易生火, 故灰屋勿接近人居.【增補山林經濟】"

74) 오행의 相生相克의 논리에 의하면 火克金이 되어야 정상이나 오히려 金克火의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한다. 相侮作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동석,『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2001, 114-115면 참조.

서 조성한 것이고, 샘은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볼 수 있겠다.

> [집 마당의 중심에서 볼 때], 子方의 땅에 우물을 파면 반드시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陰陽書』 卯方에는 우물을 파지 않는데, 물맛이 좋은 샘이라도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거가필용』 寅方에 샘을 파면 부귀하게 된다. 卯方에 샘을 파면 현명한 사람이 끊임없이 난다. 辰方에 샘을 파면 술과 음식이 끊임없이 난다. 巳方에 샘을 파면 자손이 번성한다. 午方에 샘을 파면 좋은 말이 끊임없이 난다. 未方에 샘을 파면 女孫이 음란하여 흩어진다. 申方에 샘을 파면 여자가 음란하다. 戌方에 샘을 파면 官災를 입어 병사한다. 丑方에 샘을 파면 부부가 갈라진다. 子方에 샘을 파면 자손이 끊어진다.『양택길흉론』[75]

『음양서』, 『거가필용』, 『양택길흉론』의 내용을 비교해볼 때, 子方의 우물에 대해서 흉하게 간주하는 것은 공통된 것이고, 卯方의 우물에 대해서는 『거가필용』에서 물맛이 좋은 샘을 파더라도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금기시하고 있으나, 『양택길흉론』에서는 賢者가 끊임없이 난다고 하여 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용서에 따른 상호모순적인 내용 때문에 우물의 방위에 대한 것은 논리적 체계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림 12〉『양택길흉론』에 근거한 우물의 길흉방위.

특히 『양택길흉론』에서 12지지의 방위상에 길한 방위와 흉한 방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亥방위와 酉방위를 제외하고 각 방위별 구체적 길흉을 논하고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물의 위치에 있어서 〈그림 12〉에서 보듯이 12지지방위상 '인묘진사오'의 방위는 길, '미신(유)술(해)자축'은 흉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 길흉의 내용에 있어서는 午方에 샘을 파면 좋은 말이 난다고 하여 午와

75) 「鑿井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6-67면. "子地穿井, 必有墮井死者.【陰陽書】 卯不穿井, 甘泉不香.【居家必用】 寅方泉, 富貴 ; 卯方泉, 賢人不絶 ; 辰方泉, 酒食不絶 ; 巳方泉, 子孫盛 ; 午方泉, 良馬不絶 ; 未方泉, 女孫淫離 ; 申方泉, 女子淫 ; 戌方泉, 官災病死 ; 丑方泉, 夫妻分離 ; 子方泉, 子孫失折.【陽宅吉凶論】"

馬를 대응시킨 것으로 보이고, 子方에 샘을 파면 子孫이 끊어진다고 하여 子와 子孫을 연계시켰다. 그 외 굳이 해석을 한다면 丑方에 샘을 파면 부부가 갈라진다고 하여 '소발굽의 갈라짐'을 '부부의 갈라짐'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의 것들은 쉽게 연관시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한편, 각 방위별 적절한 과실수의 식재에 따른 길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과실수로는 살구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가 있다. 집의 동쪽으로 살구나무를 심으면 아니 되고, 물의 방위인 북쪽에 자두나무가 있거나 여자의 방위인 서쪽에 복숭아나무가 있으면 음란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두나 복숭아는 대표적 홍조(紅潮)를 띠고 있는 과일로서 음란한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버드나무는 축 늘어지는 나뭇가지의 모양으로 인하여 형벌과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특히 집의 서쪽에 심을 경우 肅殺의 금기운과 합하여 그러한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회화나무나 느릅나무는 주로 길한 수목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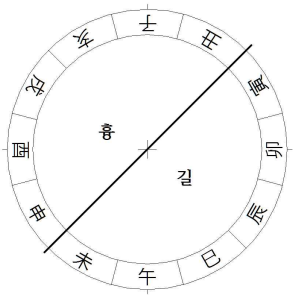
> 주택의 동쪽에 살구나무가 있으면 흉하다. 북쪽에 자두나무가 있고 서쪽에 복숭아나무가 있으면 사는 사람이 모두가 음탕하고 사악한 짓을 한다. 주택의 서쪽에 버드나무가 있으면 형벌과 죽임을 당한다. 주택의 동쪽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말이 불어나고, 서쪽에 대추나무를 심으면 소가 불어난다. 中門에 회화나무가 있으면 3대가 부귀를 누리고, 주택의 뒤에 느릅나무가 있으면 百鬼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거가필용』76)

> 변소를 설치하는 방위에 있어서는 子・丑이면 모두 흉하고, 寅・卯・未이면 크게 길하며, 辰이면 농사와 누에치기하는 데 길하고, 巳이면 자손에게 길하며, 午이면 귀인이 나고, 申이면 구설수가 그치지 아니하며, 酉이면 자손이 불효하고, 戌이면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뒤에 가서는 부유하게 되며, 亥이면 크게 흉하다.『거가필용』77)

---

76)「種樹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49면. "宅東有杏, 凶. 宅北有李, 宅西有桃, 皆爲淫邪. 宅西有柳, 爲被刑戮. 宅東種柳, 益馬 ; 宅西種棗, 益牛. 中門有槐, 富貴三世 ; 宅後有楡, 百鬼不敢近.【居家必用】"

77)「置糞屋方」,『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3면. "安廁方, 子、丑皆凶, 寅、卯、未大吉, 辰田蠶吉, 巳子孫吉, 午貴人生, 申口舌不止, 酉子孫不孝, 戌先貧後富, 亥大凶.【居家必用】"



〈그림 13〉 변소의 위치에 대한 12지지방위상의 길흉.



〈그림 14〉 중국 복건성 토루 회원루(懷遠樓)의 변소의 위치. 주로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2009년 촬영.

변소의 위치에 대한 길흉방위의 판단은 24방위가 아니라 地支로만 판단하는 12방위로 이루어진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변소의 방위를 설치함에 있어서 '子丑申酉戌亥'[78]의 6개 방위에 설치할 경우 흉하고, '寅卯辰巳午未'의 6개 방위에 설치할 경우 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림과 같이 丑未의 연결선을 기준으로 볼 때, 남동쪽에 두면 길하고 북서쪽으로 두면 흉하다는 것이 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변소는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퇴비를 생산하는 곳으로 적정한 햇볕, 통풍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길흉방위의 구분이 이해될 수도 있겠다.

3) 相對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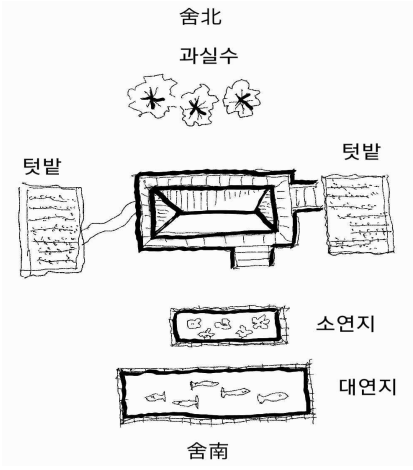
풍수의 향론에서 상대향에서는 절대향과 달리 방위 구분의 기준이 집안의 중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향에서는 중심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방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로 전후보다는 좌우가 상대적 향이 되는데, 집안에서 보느냐, 집 밖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시대의 좌우는 주로 집주인이 집안에서 대문 밖을 향해서 바라보는 위치에서 판단한다. 특히 풍수에서 상대향은 향을 정함에 있어서 대상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

78) 이 중 戌의 방위는 "처음에는 가난하다가 나중에 부유하게 된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길흉판단의 애매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일단 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라 향이 변화하는 것[79]을 의미하는데, 『상택지』에서는 좌우의 상대적 개념만 언급되어 있다.

『상택지』의 연못 조성에 대한 언급에서 "연못은 집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뒤쪽에 파는 것을 모두 금한다. 문 앞에는 연못 3개를 파는 것을 절대 금한다."[80]는 내용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집 뒤에는 과실수를 심고, 집의 좌우로는 텃밭을 만들며, 집 앞으로 두 개의 연못을 만들되, 위의 것은 작게, 아래의 것은 크게 만든다. 上層小池는 연꽃을 심고, 下層大池에는 물고기를 기른다는 것이다.

> 집 북쪽[뒤편]에는 정원을 만들어 과일나무를 심으며, 집 좌우 편에는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는다. 집 남쪽[앞면]에는 한 면을 비워 위쪽과 아래쪽으로 못을 파되,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게 만든다. 小者는 蓮池로 하고, 大者는 養魚場으로 한다.『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81]



〈그림 15〉 소연지, 대연지의 개념도.

상대향적 방위개념은 집 주위의 고정적 대상의 설치에 대한 방위뿐 아니라 바람과 같은 동적 대상에 대한 방위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凹風이라고 하면 주로 산의 고개나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데, 풍수에서 요풍은 일단 사람에게 해로운 바람으로 간주된다. 『상택지』에서 凹風은 風殺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요풍이 옆구리를 치거나 물소리가 졸졸 들려오는 곳은

79)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朝案定穴法'이라고 하여 앞에 있는 산봉우리의 숫자와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향을 정하는 것이 있다.

80) 「池塘雜忌」,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7면. "塘居屋左或右或屋後, 皆忌之 ; 門前三塘, 切忌之."

81) 「池塘雜法」, 『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8면. "舍北爲園, 種以果木, 舍左右爲圃, 種以蔬菜. 空其南一面 鑿上下池, 一小一大, 小者種蓮, 大者養魚.【攷事十二集】"

집터로서 피해야 할 곳"[82]이라고 하면서 水殺과 함께 五殺[83]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요풍이 집안으로 불어오면 기운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왼쪽으로 불어오면 長子가 피해를 입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少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왼쪽을 장자로 보고 오른쪽을 소자로 보는 것은 음택풍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分房法이다.[84]

> 일반적으로 凹風이 집안으로 불어오면 기운이 흩어지고, 집의 왼쪽으로 들어오면 長子에게 해가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小子에게 해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모두 피해야 한다.『증보산림경제』[85]

그 외, 풍수의 상대향적 내용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四神砂의 방위이다. 사신사는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쪽에서 청룡이었던 것이 좌측 건너편에서는 백호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穴處의 평가에 있어서 저쪽의 건너편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쪽의 사정상 청룡과 백호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택지』에서도 청룡과 백호, 물길과 진입로의 상관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陰陽交合이 이루어져서 기운을 풍성하게 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動陽靜陰을 기준으로 산을 陰이라고 하고 물을 陽이라고 보는데, 산과 물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길하게 생각한다. 즉, 左旋龍일 경우는 右旋水, 右旋龍일 경우 左旋水의 형식으로 음양교합이 되어 길하다는 것이다. 한편,『상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불어 출입동선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인데, 물이 좌선수 즉 청룡줄기를 따라서 내려온다면 그것을 거스르거나 교차하도록 동선을 구성하는 것을 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출입동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건

82)「論山谷陽基」,『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8면. "切忌. (…) 凹風射脅, 水聲潺湲."
83)「五箭地」,『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44면에서 5가지 殺로서 風箭, 水箭, 土箭, 石箭, 木箭을 제시하였다.
84) 徐善繼・徐善述, 앞의 책, 권5상, 2a면. "青龍管長房. (…) 白虎管幼房."
85)「論風射方」,『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16면. "凡有凹風吹射則氣散, 風左入則長房欠, 風右入則小房虧, 皆宜避忌.【增補山林經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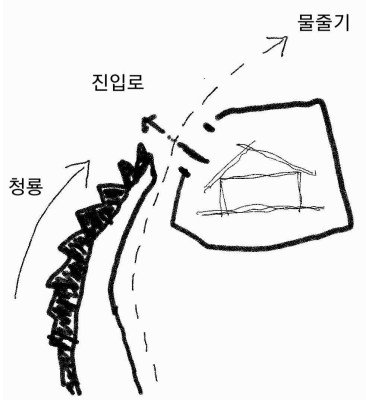
너는 징검다리나 교각이 필요한 것이다.

> 문 앞에 내는 길이 만약 흘러가는 물의 방향으로 나 있다면 흉하다.『양택길흉론』[86]
> 山水가 청룡방향으로부터 온다면, 문 앞에 내는 길은 왼쪽을 향하여 내야하고, 산수가 백호방향으로부터 온다면 문 앞에 내는 길은 오른쪽을 향하여 내야한다. 만약 물이 흘러 내려가는 방향으로 문 앞길을 낸다면 흉하다.『양택길흉론』[87]

집의 왼쪽에서 흐르는 계류를 청룡이라고 하고 오른쪽의 도로를 백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적절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은 상대향적 방위로서 서로 바뀌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왼쪽에 흐르는 물[청룡]이 없고, 오른쪽에 긴 길[백호]이 없으며, 앞에 연못[주작]이 없고, 뒤에 구릉[현무]이 없다면, 동쪽[왼쪽]에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남쪽[앞]에 매화나무와 대추나무를 심으며, 서쪽[오른쪽]에 치자나무와 느릅나무를 심고, 북쪽[현무]에는 내나무[柰, 능금의 일종]와 살구나무를 심는다.『거가필용』[88]

식재의 방법으로 청룡을 대신할 경우는 복숭아나무나 버드나무를 심고, 주작을 대신하고자 할 경우는 매화나무, 대추나무를 심는다. 백호를 대신하고자 할 때는 치자나무, 느릅나무를 심고, 현무를 대신할 때는 사과나무나 살구나무를 심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청룡은 집터의 좌측, 백호는 우측, 주작은 앞쪽, 현무는 뒤쪽을 의미하며 그에 맞는 식재의 종류를 정해준 것이다.



〈그림 16〉 산수가 청룡방위에서 올 때 진입로. 물을 거스르거나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낸다.

86)「取路法」,『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0면. "門路, 若在去水方則凶."
87)「取路法」,『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0면. "山水從青龍方來, 宜從向左開門路 ; 山水從白虎方來, 宜從向右開門路. 若向水隨流方開門路凶."
88)「種樹代四象法」,『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48면. "凡宅若無左流水, 右長途, 前汚池, 後邱陵, 則東種桃、柳, 南種梅、棗, 西種梔、楡, 北種柰、杏.【居家必用】"

한편, 집의 서쪽에 도로가 있으면 이를 백호로 간주한다는 내용[89]이 있는데, "집 서쪽에 연못이 있으면 이를 '백호가 아가리를 벌렸다'라 하는데, 그곳에 연못 파기를 모두 금한다."[90]라고 하여 도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연못이 있는 것이므로 흉하다는 것이다.

> 來龍[산줄기]이 뒤에 있으면 방아는 앞에 두어야 좋고, 용이 앞에서 다가오면 방아는 뒤에 둔다. 용이 왼쪽에서 다가오면 방아는 오른쪽에 두고, 용이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방아는 왼쪽에 두어야 길하다. 방아의 머리 쪽이 밖을 향할 경우, 사람이 방아의 뒤에서 방아를 밟는 것이 좋다. 방아의 머리 쪽이 집을 향하면 크게 길하지 않다. 또 청룡이나 백호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피한다.『증보산림경제』[91]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상대향론적 언급으로서 곡식을 빻는데 사용하는 방아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방아는 무엇이든 잘게 부수어 다듬는 도구이므로, 일종의 殺氣가 있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가 있는 도구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살기가 생기와 충돌하여 생기가 손상되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生氣를 공급해주는 원천인 산줄기 즉 來龍을 다치게 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위적 대책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내룡과 방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방아의 위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내룡이 왼쪽으로 다가오는 지형이라면 방아는 오른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방아를 왼쪽에 두는 것이다. 즉, 앞에서 내룡이 오는 경우라면 방아를 뒤에 두고 뒤에서 오는 경우라면 방아를 앞에 둔다는 식이다. 그 외에 방아가 통나무를 눕힌 모양이므로, 그것의 머리 쪽을 향하여 찌르는 형상이 된다. 이런 것을 두고 일종의 衝殺이 작용한다고 보았고, 방아머리가 집안으로 향하는 것을 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방아의 머리가 집의 밖으로 향할 경우는 뒤쪽, 즉 집의 바깥으로 보면서 방아를 밟

89)「論四象」,『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9면 참조.
90)「池塘雜忌」,『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7면. "西有池, 謂之'白虎開口', 皆忌之."
91)「安碓磨方位」,『林園經濟志』(규6565) 相宅志 卷1, 62-63면. "來龍在後, 碓宜居前 ; 龍前來, 碓居後. 龍來左, 碓居右 ; 龍來右, 碓居左吉. 碓頭向外, 人從後踏可也. 碓頭向宅, 大不吉. 又忌在龍在虎.【增補山林經濟】"

아 찧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또 방아를 집의 좌우에 설치하여 청룡이나 백호를 대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상택지』의 향론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향론적 내용에서도 지세향, 절대향, 상대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임원경제지』의 『상택지』의 내용 중에 풍수에 관련된 내용을 필요한 경우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살펴보았다. 『임원경제지』의 『상택지』의 서(序)에 해당하는 「相宅志引」에서 풍석은 "術數는 군자가 취하지 않는 것이다. (…) 살 곳을 살피는 사람은 이러한 술수를 버리는 것이 옳다. (…) 임원(林園)의 거처는 형편을 대강 헤아려서 그럭저럭 이 한 몸 의지할 수 있으면 알맞은 것이다. 어느 겨를에 흥망(興亡)과 화복(禍福)의 술수를 따지겠는가?"[92]라고 하였다.

『상택지』는 권1과 권2로 나누어져 있는데, 권2의 부분은 전국의 可居地를 「八域名基」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풍수이론으로 볼 내용이 극소수이고, 주로 권1에서 풍수론에 가까운 내용을 많이[93] 볼 수 있다. 『상택지』 전체의 분량으로 볼 때는 50%가 되지 않지만, 권1의 경우로만 볼 때 거의 70% 이상이 풍수적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본 연구자는 풍석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상택지』가 당시에도 난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느 풍수서적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풍수서들이 갖고 있던 길흉화복적 술수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짓기를 위한 『상택지』를 저술함에 있어서 풍수적 내용을 100% 배제할 수는

92) 서유구, 앞의 책, 60-64면.

93) 권1은 모두 82개로 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중 직접적인 풍수론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25개로 30%로 볼 수 있다. 특히 地理에 20개항, 營治에 32개항 모두가 풍수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다.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비록 풍석이 『상택지』에 풍수적 내용을 일부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비판적 시각 없이 맹신적 태도로 복사 인용한 것이 아니라 「상택지인」에서 밝힌 자신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최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과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자는 「상택지인」에서의 그의 주장과 『상택지』의 내용이 서로 모순 또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견해는 본 연구를 통해서 『상택지』에 담긴 풍수적 내용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분석한 결과로서 조심스럽게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상택지』의 내용 중에서 풍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龍穴砂水의 形勢論과 地勢向, 絶對向, 相對向의 理氣論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상택지』에서 거론되고 있는 용론의 핵심은 '生龍'을 내룡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진입로와 대문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생룡인 내룡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穴論에 대해서는 穴之結作, 的穴 등의 풍수적 용어를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砂論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筆峯'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 선호하였던 봉우리 형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려준다. 水論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水口關鎖'에 대한 것과 '水殺'에 대한 것이다. 「論水應」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같이 '水管財祿'으로서 수구가 잘 여미어져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水가 재물과 복록을 가져다주는 생기의 근원일 수도 있지만, 禍害를 불러일으키는 살기의 존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낙숫물의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택에서의 殺氣의 개념은 여러 곳에서 언급된 '衝'의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다. 또한 『상택지』에서 특별히 경주를 사례로 '回龍顧祖形局'이 언급되었고 대표적 명당의 하나의 형식으로 '寬暢明堂'이 언급되었다.

『상택지』에서 드러난 풍수의 이기론적 내용으로 먼저 지세향론적 언급은 「論背山面湖」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풍수에서 자주 거론되는 背山臨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절대향론적 언급은 「論四方高低」, 「論向背」, 「論居室宜向

南」, 「造屋雜忌」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상택지』에서의 상대향론적 언급은 「池塘雜忌」, 「池塘雜法」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상택지』의 풍수 내용을 살펴보고 풍수이론과 대비시켜 보았으며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풍수를 포함한 술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서유구의 『상택지』는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특히 풍수적 관점에서 『상택지』를 평가한다면, 집짓기에 있어서 잡다하고 복잡한 풍수적 내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취하고 어떠한 부분을 버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다. 『임원경제지』의 『상택지』는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와 함께 조선시대의 풍수사상, 한국의 풍수사상 속에서 음택풍수 위주의 풍수에서 탈피하여 산사람을 위한 양택풍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가치 있는 저술임이 분명해 보인다.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은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林園經濟志』(규656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林園經濟志』(신암 E1 A357), 고려대 중앙도서관 한적실.
『林園十六志』(佐藤六石氏 收集本, 韓9-64), 大阪府立中之島図書館.

서유구, 『임원경제지 상택지』, 이동인 외 역, 풍석문화재단, 2019.
심경호, 「『임원경제지』의 문명사적 가치」, 『쌀·삶·문명연구』 제2호, 쌀·삶·문명연구원, 2009, 5-42면.
안대회, 「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서유구의 利用厚生學」, 『한국실학연구』 제11호, 한국실학학회, 2006, 47-72면.
_____,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83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447-479면.
염정섭, 「『林園經濟志』의 구성과 내용」, 『농업사연구』 제8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 1-42면.
조규문, 「『增補山林經濟』의 『卜居』에 대한 풍수적 考察」, 『동양철학연구』 제94집, 동양철학연구회, 2018, 43-71면.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_____, 『황제택경』, 민속원, 2017.
_____, 「『임원경제지』 「상택지」의 내용 중 '木星輪圖'에 의한 방위측정상의 길흉판단에 관한 연구」, 『石堂論叢』 제74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9, 137-171면.
조창록, 「楓石 徐有榘와 林園經濟」, 『한문학보』 제8집, 우리한문학회, 2003, 201-225면.
_____, 「서유구의 학문관과 『임원경제지』의 글쓰기 방식」, 『쌀·삶·문명연구』 제2호, 쌀·삶·문명연구원, 2009, 93-108면.
한동석,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2001.

徐善繼·徐善述,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上海: 錦章圖書局, 1922(民國11年).

【Abstract】

A Study on Feng-Shui (風水) Contents of *Imwonkyungjeji (林園經濟志)* "Sangtaekji (相宅志)"

Zho, In-Choul*

Imwonkyungjeji (林園經濟志) is an agricultural encyclopedia written by Seo Yu Goo (徐有榘, 1764-1845) in Joseon Dynasty. The book quoted a lot of Chinese books.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is book is a very important source to see the life style of Joseon and values of Yang Ban class at that time. Sangtaek (相宅), the title of this chapter, means looking at a house form as the name itself means. "Sangtaekji (相宅志)" consists mainly of determining the site of living person's home and home itself, adjacent road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plants and ponds, as a fengshui (風水) logic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Sangtaekji (相宅志)" according to fengshui theory divided into Hyengse (形勢) theory of Ryong (龍), Hyeol (穴), Sa (砂), Su (水) and Ligi (理氣) theory of a geographical direction (地勢向), an absolute direction (絶對向), and a relative direction (相對向). It also mentioned Hyungguk theory, which sees Kyungju (慶州) as an example of Hoeryonggojo (回龍顧祖, embracing form of mountains)-Hyungguk. There was also a mention of Myungdang theory and the Kwanchang (寬暢, a wide and brighten field) Myungdang was cited as an example. A geographical direction (地勢向) method of the Ligi theory is seen in 'a backing mountain and a facing lake (背山面湖)'. It has the same meaning as a backing mountain and a facing water stream, which is often mentioned in fengshui. Especially, it explains a relation between a shape of site and orientation in 'addressing lack of a orientation'. In "Sangtaekji (相宅志)", if roads are located in the south and are subject to the same area, it prefers a land with depth, even if it narrowly contact with the road rather than long stretches. "Sangtaekji (相宅志)" is a summary of various fengshui theories.

Keywords: Sangtaekji (相宅志), Fengshui (風水), Yangtaek (陽宅), Orientation, Hyungse (形勢), compas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Oriental Science, Wonkwang Digital Univ.

접수일: 2019.06.18.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01.